아키타 항의 해상풍력 발전

바다와 맞닿은 아키타현에서는 일 년 내내 강한 바람이 붑니다. 아키타현에서는 강한 바람을 활용하여 2000 년부터 280 기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.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는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수심이 얕은 아키타 항의 해저 지형은 일본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에 적합했습니다. 2023 년 1 월 13 기의 풍력 발전기가 가동을 시작했으며 각 발전기는 약 4,000 세대분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.

해상 건설은 어려운 점도 있지만, 해상풍력 발전기는 기존 건물이나 인프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한 해상풍력 발전은 자연 지형을 해치지 않고 커다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육상풍력 발전기의 평균 높이는 120m 지만, 아키타 항의 육상풍력 발전기는 150m 입니다. 포트타워 세리온의 높이보다 살짝 더 높은 이 발전기는 더 많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.